

## 지혜로운 송로몬과 당감 재판

이스라엘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다윗이 유대인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의 아들 송로몬이 젊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노인이 지팡이를 들고 한겨울에 길을 가다가 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뱀은 반쯤 얼어 있었습니다.

‘쫂쫂, 가엾어라. 뱀이 얼어 죽겠구나.’

노인은 뱀을 가슴에 안아 따뜻하게 품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뱀은 몸을 녹여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뱀은 정신이 들자마자 노인을 죽이려고 노인의 몸을 친친 감아 버렸습니다.

노인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너는 은혜도 모르는구나. 내가 네 목숨을 구해 주었는데 너는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내가 잘한 일인지 어디 가서 재판을 받기로 하자.”

뱀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까요?”

“이 곳을 지나가는 이에게 판결을 맡겨 보자.”

노인과 뱀은 길가에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황소 한 마리가 걸어왔습니다.

노인이 황소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황소야, 우리를 위해 판결을 내려 주렴. 내가 얼어 죽을 뻔한 뱀을 구해 주었는데 뱀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니?”

뱀이 말했습니다.

“황소야, 나는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했을 뿐이란다. 성경에는 ‘내가 사람과 뱀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리라’ 고 되어 있거든. 나의 원수인 사람을 죽이려 한 것이 뭐가 잘못이니?”



작가 | 신현배

4201708@hanmail.net

약력

시인, 아동문학가  
조선일보, 경향신문, 신춘문예 당선, 창주문학상, 청구문학상, 광명문학 대상 수상, 시집 <거미줄>, <매미가 벗어놓은 여름> 외 지은 책 다수

황소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뱀의 목숨을 구해 주어도 뱀이 사람을 해치려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 이치가 다 그렇거든요. 사람은 누가 자기에게 선을 행해도 악으로 갚아요. 제 주인만 해도 그래요.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들판에서 쉬지 않고 일하지만, 주인이 나를 위해 해 주는 것은 보잘것 없어요. 주인은 온갖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나한테는 겨우 귀리와 짚을 조금 줄 뿐이에요. 그리고 주인은 푹신한 침대에서 편안히 자면서 저는 마당에서 한뼉잠을 자게 하지요. 이것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므로 뱀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당한 일이에요.”

뱀이 말했습니다.

“황소의 판결을 잘 들으셨죠? 자, 이제 당신이 죽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시겠죠?”

“자, 잠깐만! 황소 말고 다른 이의 판결을 들어 보자.”

“좋아요.”

뱀이 승낙하여 또 다른 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나귀도 황소와 똑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람은 원래 선을 악으로 갚아요. 제가 뼈가 부서져라 일해도 돌아오는 것은 모진 매질뿐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당한 일이에요.”

뱀이 말했습니다.

“어때요? 이제는 판결을 따르시겠죠?”

노인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신 다윗 왕에게 가자. 그분은 현명한 분이시니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실 거야.”

노인과 뱀은 궁전으로 가서 다윗 왕을 만났습니다. 다윗 왕은 노인과 뱀의 이야기를 차례로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판결할 것이 없다. 뱀의 주장이 옳으니까. 성경에는 ‘내가 사람과 뱀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리라.’ 고 되어 있지 않느냐? 뱀이 원수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네가 뱀을 구해 준 것은 잘못이다. 원수인 뱀이 죽게 내버려 뒀어야지.”

뱀에게 몸이 휘감겨 있는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궁전에서 나왔습니다. 궁전 마당에는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서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노인을 보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눈물을 흘리시나요?”

“왕자님은 지혜로운 분이시니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시겠죠?”

노인은 솔로몬에게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뱀도 솔로몬에게 자기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솔로몬이 노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께 가서서 판결을 받으셨나요?”

“왕께서는 판결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뱀의 주장이 옳다고 하시면서, 뱀이 원수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버지께 여쭙 볼 것이 있으니 우리 함께 궁전으로 들어가 봅시다.”

솔로몬은 노인과 뱀을 데리고 다윗 왕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어째서 이 사람과 뱀의 일을 판결해 주지 않으셨나요?”

다윗 왕이 대답했습니다.

“판결할 것도 없다.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 말이다. 성경에 ‘내가 사람과 뱀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리라.’ 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원수인 뱀을 구해 주지 말았어야지. 율법을 지키지 않아 스스로 화를 부른 것이다.”

“제가 아버지 대신 판결을 내리겠다고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렇게 해라.”

솔로몬은 다윗 왕의 허락을 받고 노인과 뱀 앞에 섰습니다. 솔로몬이 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째서 내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해치려 하느냐?”

뱀이 대답했습니다.

“하느님이 제게 명하셨습니다. 사람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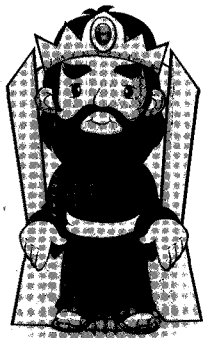
“너는 성경에 적힌 율법을 그대로 지키겠느냐?”

“예, 지키겠습니다.”

“그럼 그를 풀어 주고 그 옆에 나란히 서라. 성경에는 ‘분쟁하는 두 사람은 재판장 앞에서야 한다’ 고 되어 있으니 말이다.”

“알겠습니다, 왕자님.”

뱀이 노인을 풀어 주고 노인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솔로몬이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성경에 적힌 율법대로 행하십시오. ‘네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라’ 고 했으니 그대로 행하십시오.”

노인에게는 늘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지팡이로 뱀의 머리를 쳐서 죽였습니다. 이리하여 노인은 지혜로운 솔로몬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에 탄복했습니다.

“어쩐 그렇게 기막힌 판결을 내리셨을까. 솔로몬 왕자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야.”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뒤, 한 병사가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윗 왕의 근위병이었습니다. 근위병은 솔로몬에게 절을 한 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왕자님, 제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몇 년 전에 달걀 한 개를 꾸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달걀을 꾸어 준 사람에게 고소를 당해 ‘달걀 재판’ 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생 다 못 갚을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근위병이 솔로몬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위병은 몇 년 전에 다윗의 군대에 소속되어 전쟁터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사들이 야영을 할 때 저녁 식사로 삶은 달걀 몇 개씩이 주어졌습니다. 근위병은 마침 배가 고팠기 때문에 달걀을 순식간에 먹어 치웠습니다.

그래도 근위병은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옆자리에 있는 병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달걀 한 개만 꾸어 주실래요?”

“좋아요. 그 대신 나중에 꼭 갚아야 합니다.”

근위병은 동료 병사에게 달걀 한 개를 꾸어 얼른 먹어 치웠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온갖 전

투를 치른 뒤 예루살렘으로 개선했습니다.

근위병에게 달걀 한 개를 꾸어 주었던 동료 병사가 근위병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달걀을 꾸어 갔지요? 그 값을 받으러 왔습니다.”

동료 병사는 근위병에게 달걀 값을 말했는데, 평생 다 못 값을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근위병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달걀 한 개를 꾸었을 뿐인데, 달걀 값이 왜 이리 많죠? 당신이 잘못 계산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제대로 계산했어요. 당신도 생각해 보세요. 그 달걀을 당신이 먹지 않았다면 병아리로 깨어나 암탉이 되었을 테고, 그 암탉이 또 얼마나 많은 알을 낳았겠어요? 그 알들이 또 병아리로 깨어나 암탉이 되었을 테고, 그러다 보면 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겠지요? 당신이 값아야 할 빛이 얼마인지 요즘 닭 값을 알아보면 알 수 있지요.”

근위병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영터리가 어디 있소? 내가 꾸어 간 것은 달걀 한 개뿐이에요. 그렇게 많은 돈은 나한테 없으니 내게 돈 받을 생각 말아요.”

그러나 동료 병사는 끈질긴 사람이었습니다. 빛을 받아 내려고 근위병을 고소하여 마침내 다윗 왕 앞에서 ‘달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달걀 한 개만 돌려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사람 말대로 달걀 한 개가 그렇게 많은 닭으로 불어났을 테니 그 값을 고스란히 물어줘야 한다.”

결국 근위병은 재판에서 저서 평생 다 못 값

을 빛을 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군요.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근위병에게 귓속말로 뭐라고 소곤 거렸습니다. 근위병은 빙그레 웃더니 솔로몬에게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예루살렘 교외에는 병사들이 주둔하는 부대가 있고, 그 근처에는 들판이 있었습니다.

근위병은 병사들이 지나갈 때마다 삶은 콩을 밭에 뿌렸습니다. 병사들은 이것을 보고 근위병을 비웃었습니다.

“당신 미쳤소? 삶은 콩을 밭에 뿌려 싹이 나기를 바라다니.”

근위병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깨어날 수 있나요? 우리 다윗 왕께서도 그렇게 믿으시니 삶은 콩에서 싹이 나는 것은 당연해요.”

다윗 왕은 곧 이 소문을 듣고 근위병을 불러 물었습니다.

“너한테 누가 삶은 콩을 밭에 뿌리라고 했느냐? 솔로몬이 시켰느냐?”

근위병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다윗 왕은 솔로몬을 불렀습니다.

“너는 ‘달걀 재판’의 내 판결이 불만인 모양이구나. 그래, 너라면 어떻게 판결하겠느냐?”

“이미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삶은 달걀에서는 병아리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은 다시 ‘달걀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근위병에게 삶은 달걀 한 개만 값이라고 판결을 반복했습니다. 